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9 “우리도 뛰다”



보해양조 마라톤 동호회원들이 대회 출전에 앞서 고객사랑과 힘찬 레이스를 다짐하고 있다.

평소 다져온 강철체력으로 고객께 ‘좋은 술’ 권합니다

■ 보해양조

“마라톤으로 다진 체력을 바탕으로, 고객 사랑에 부응하는 ‘좋은 술’ 만들겠습니다.”

58년간 주류산업의 외길을 걸어온 보해양조(대표이사 임건우)의 새 마라톤 동호회원 35명이 제 43회 3·1절 마라톤 대회에 출사표를 던졌다.

동호회는 광주지점을 비롯해 흥보실, 기획조정실, 장성공장, 영업관리팀, 보해식품 등 각 부서의 다양한 멤버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평소 주말을 이용해 등산을 하거나 학교 운동장을 돌며 함께 호흡하면서 체력을 다져왔다.

나경호(42·흥보실 차장) 동호회장은 “업무 특성상 술 마시는

을 정도다. 흥씨는 “마라톤은 체력 뿐 아니라 지구력, 스피드 3박자를 갖춰야 하는 종합스포츠”라면서 “신입사원이 아닌 보해직원으로서의 입지를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 열심히 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첫 출전 강수연 ‘건강미녀’ 탄생 기대

3·1절 대회를 통해 올해 처음 마라톤에 입문한다는 강수연(25·여·광주지점)씨는 “보해에는 몸이 좋은 매취순과 보해 복분자가 있는 것처럼, 건강미녀로 거듭나고자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됐다”며 “‘헬빙’ 열풍이 대세인 요즘, 마라톤 대회를 통해 스스로 체력을 테스트하고 부족한 부분을 단련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두 딸과 함께 참가할 예정인 정기현(32·고객상담실 대리)씨는 “이번 대회를 통해 3·1절과 마라톤이 주는 의미를 가슴깊이 되새기겠다”면서 “대회 참여를 위해 두 딸과 함께 초등학교 운동장을 도는 등 달리기 연습을 하며, 가족의 건강도 챙기고 많은 대화도 나눌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보해양조 이성진 전무는 “마라톤은 임직원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물론 결속을 다지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촉매제”라며 “마라톤을 통해 직원들의 인화와 단결심을 배양해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동호회원 35명 타고난 마라토너들

기회가 많아 체력관리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는데 달리기기를 통해 건강은 물론 직원들간 화합까지 챙길 수 있었다”고 말한다.

예전에는 축구를 좋아해 ‘나라도나’라는 별명이 붙었으나, 동호회에 몰입하면서 ‘나영조’로 불리게 됐다는 게 나 회장의 얘기다. 이번 대회 출전자 중 최고의 유망선수는 지난해 입사한 홍경중(29·흥보실)씨. 다음달에 ‘광주마라톤 동호회’ 회원이기도 한 흥씨는 다른 대회의 하프코스나 풀코스 완주한 경험이 셀 수 없

최경주 월드챔피언십 첫 16강 진출

세계 64강 겨루는 대회... 6년 연속 출전 끝에 달성



8m 버디 퍼트를 집어넣은 풀터에게 덜미를 잡히는 듯 했다. 1번 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전에서 최경주는 벙커에서 친 두번째샷이 벙커 턱을 맞은 데 이어 러프에서 때린 세번째 샷은 그린 앞쪽에 꽂힌 핀을 한참 지나쳤다. 자칫 3퍼트로 이어지기 쉬운 20m 내리막 버디 퍼트를 홀에 잘 붙여 무난하게 파를 지킨 최경주는 세번째샷을 벙커에 빠트린 뒤 1.5m 파퍼트를 놓친 풀터를 따돌렸다. 대회 세번째 우승을 노리는 우즈는 1라운드에서 최하위 랭커 J.B 홀스(미국)에게 혼쭐이 당한 것과 달리 2회전에서는 아론 오버홀저(미국)를 상대로 싱거운 승리를 거뒀다. 작년 대회 우승자 스텐슨과 비제이 싱(피지), 지난해 US오픈 챔피언 양헬 카브레라(아르헨티나) 등도 3회전에 진출해 이를 앞섰다.

위성미 부활?

LPGA 투어 필즈오픈 1R

1년 8개월만에 60대 타수

위성미(19)가 1년8개월만에 60대 타수를 기록해 부활할 가능성을 보였다.

위성미는 22일(한국시간) 하와이주 카폴레이 코올리나골프장(파72·6천519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필즈오픈 1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3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쳤다.

그가 스코어카드에 60대 타수를 적어낸 것은 지난 2006년 7월 에비앙마스터스 이후 1년8개월 만이다.

당시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공동 준우승을 차지한 위성미는 이어진 브리티시여자오픈과 삼성월드챔피언십에서 한번도 언더파 스코어를 내지 못했고 지난해 여섯차례 여자대회에서도 1언더파 71타만 두차례 기록했다.

작년 10월 삼성월드챔피언십 이후 낙담 만에 필드에 나선 위성미의 위풍파적인 장타는 변함없었다.

이선화(22·CJ), 민나은(20), 강지민(28·CJ)이 3언더파 69타로 상위권 입상의 발판을 마련했다.

허정무 ‘9년전 악몽’ 떨칠까

(시드니 올림픽 예선日到 2연패)

■ 오늘 영원한 라이벌 한·일전 관전포인트

‘울보’ 가와구치 이번엔 누가 울릴까

남일-엔도 ‘중원 혈투’ 최종 승자는



영원한 라이벌인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축구 정상 길목에서 만났다.

한국과 일본은 23일 오후 7시15분(이하 한국시간) 중국 충칭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2008 동아시아선수권대회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이 경기 승자가 대회 챔피언이다.

통산 전적에서는 한국이 38승19무12패의 압도적인 우세를 지니고 있지만 한·일전은 늘 명승부를 연출해 왔다. 역대 70번째 한·일전의 관전포인트를 살펴본다.

◇허정무 ‘9년 전 후회 털어낸다’=1998년 말부터 2년 동안 국가대표팀과 올림픽대표팀을 이끌었던 허정무 감독은 당시 일본과 맞대결에서 2전 전승을 거뒀다. 1998년 12월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최용수의 두 골로 2-0으로 제압했고, 2000년 4월 잠실에서 열린 친선경기에서 하석주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챙겼다.

하지만 허 감독은 한·일전 하면 두고두고 후회되는 장면이 있다. 이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출국할 때부터 꺼낸 얘기다. 역대 최강 멤버로 꼽히던 2000 시드니 올림픽대표팀 사령탑으로서 1999년 9월 치른 일본과 두 차례 맞대결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은 도쿄에서 열린 원정 1차전에서 1-4로 참패했고, 이어 같은 달 27일 잠실에서

벌인 2차전에서도 0-1로 무릎꿇었다. 7년 만에 대표팀 사령탑으로 복귀해 치르는 첫 한·일전. 허 감독이 9년 전의 악몽을 말끔히 털어낼 수 있을까.

◇가와구치, 이번엔 누가 울릴까=일본은 베테랑 골키퍼 가와구치 요시카즈(33·주빌로 이와타)가 이번 한국과 맞대결에 출전할 예정이다. 1996년 3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애틀랜타 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2-1 승)에서 결승골을 뽑으며 가와구치를 울린 최용수(FC서울 코치)가 “가와구치는 원래 잘 운다”고 말해 가와구치에게는 한때 ‘울보’라는 별명이 따라다녔다.

최용수는 일본과 경기 중 가와구치가 챙겨온 물통의 물을 들이키고 뚜껑도 닫지 않은 채 던져버리는 등 올림픽대표 시절부터 ‘가와구치 킬러’로 유명했다.

이후 가와구치는 ‘도쿄대잡’으로 잘 알려진 1997년 9월 도쿄에서 열린 프랑스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에서 서정원, 이민성에게 연속골을 내주고 1-2 패배를 맞보는 등 1990년대 한·일전에서 눈물을 꽤나 흘렸다.

이번엔 가와구치를 울린 태극전사는 누구일까.

◇김남일-엔도, ‘중원 혈투’ 승자는=한·일 양국은 이번 대표팀을 국내파로 구성했다. 양팀 통틀어 유일한 해외파는 허정무호의 김남일(비셀 고베)이지만 그도 올 시즌부터 일본 J-리그에서 뛰게 돼 사실상 국내파 간의 맞대결이다.

주장 김남일은 해외파 주축이 빠진 한국 대표팀의 구심점이다. 20일 남북대결(1-1 무승부)에서 원발 뒤꿈치 통증으로 전반만 뛰고 교체됐는데 이번 한·일전 출전에는 문제가 없다.

이제 맞서는 일본 대표팀의 키프레이어는 엔도 야스히토(28·감바 오사카)다. 경기 중에도 중앙과 측면을 활발하게 오가며 일본 공격을 이끄는 미드필더다.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인 김남일과는 충돌이 불가피하다.

김남일은 A매치 78경기(2골)를 뛰었고, 엔도 역시 62경기(5골)에 출전한 경험 많은 선수들이다. 김남일과 엔도의 중원 싸움이 팀의 승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재욱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혁! 박주영 못뛰고 고기구 마저...

‘돌아온 천재’ 박주영(23·FC서울)이 부상으로 23일 축구대표팀 한·일전에 출전할 수 없게 된 데 이어 ‘원톱 대체요원’인 장신(187cm) 공격수 고기구(28·전남)마저 부상했다.

이원재 축구대표팀 미디어담당관은 22일 “고기구가 사타구니 주변 미세 근육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박주영과 함께 병원에 다녀왔는데 일본전에 뛰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허정무 대표팀 감독은 22일 저녁 훈련에 고기구의 상태를 보고 일본전 출전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다.

박주영, 고기구가 모두 뛰지 못할 경우 허정무 감독이 원톱을 포기하고 염기훈(24·울산) 등 측면 공격수를 전방에 배치하는 무뎀 전략으로 선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北 정대세도 출전 불투명

두 경기 연속골을 터트린 북한 축구대표팀의 스트라이커 정대세(24·가와사키)가 부상으로 중국과 2008 동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 마지막 경기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정대세는 지난 20일 남북대결에서 엉덩이와 허벅지 연결 부위 근육에 타박상을 입어 21일 팀 훈련을 하지 못했다.

김정훈 북한 대표팀 감독은 22일까지 정대세의 몸 상태를 지켜본 뒤 23일 오후 9시45분(한국시간) 중국 충칭의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중국과 대회 최종전 출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 핸드볼 베이징 가나 못가나

올림픽 출전여부 3월 CAS 청문회서 결론 날듯

한국의 핸드볼 올림픽 출전 여부가 3월 중순 이후 국제스포츠중재판소(CAS) 청문회에서 결론 나게 됐다.

CAS는 21일(한국시간) 아시아핸드볼연맹(AHF)이 한국의 올림픽 출전권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중재 요청을 접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CAS는 AHF가 카자흐스탄 핸드볼연맹, 쿠웨이트 핸드볼협회 등과 함께 중재 요청을 냈고, 국제핸드볼연맹(IHF)도 CAS의 중재를 받아들여이기로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AHF는 중재 요청서에서 한국이 아니라 쿠웨이트와 카자흐스탄이 올림픽에 출전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 주장을 듣는 청문회는 AHF 등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3월 셋째 주에 열리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3월10일 이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CAS 청문회가 한국의 올림픽 출전 여부를 가르는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CAS는 또 중재위원 명단과 중재 일정 등을 수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고 한성주 ‘최우수’

전국장애인 동계체전 폐막

22일 막을 내린 제5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전에서 광주시 대표 한성주(전남고 3)가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한성주는 지난 20일 강원도 춘천 의암빙상장에서 열린 학생부 빙상 500m에서 광주시 선수단에 첫 금을 안겨준 뒤, 21일에도 빙상 1천m에서 1분58초36으로 끝인 2관왕에 올랐다.

광주시 장애인선수단은 한성주의 선전에 힘입어 금 2, 은 2개를 따내며 종합 5위를 차지했다. /최재욱기자 lion@kwangju.co.kr



23일(토)
▲07/08 프로농구 <동부 : KT&G>(14 : 50·XSPORTS), <KCC : SK>(14 : 50·SBS스포츠)

▲07/08 여자프로농구<신세계 : 삼성생명>(16 : 50·SBS스포츠)

▲07/08 V리그 남자부<한국전력 : LG손보>(14 : 30), 여자부<현대건설 : 도로공사>(17 : 00·KBS N SPORTS)

▲2008 동아시아 축구 선수권대회 남자부 <한국 : 일본>(19 : 00·KBS2)

24일(일)
▲07/0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리버풀 : 미들즈브로>(00 : 00), <뉴캐슬 : 맨체스터Utd>(02 : 00·MBC ESPN)

▲07/08 프로농구 <KTF : LG>(14 : 50), <모비스 : KT&G>(17 : 00·XSPORTS), <삼성 : KCC>(16 : 50·SBS스포츠)

▲07/08 V리그 남자부<삼성화재 : 대한항공>(13 : 30), 여자부<KT&G : GS칼텍스>(16 : 00·KBS N SPORTS)

▲2008 동아시아 축구 선수권대회 여자부 <대한민국 : 북한>(18 : 30·KBS N SPORTS)

▲07/08 칼링컵 결승전<헬시 : 토트넘>(23 : 30·KBS N SPORTS)

골프·연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특필리 회원권

골프장	시세/매매	골프장	시세/매매
광주	3,500	충청	1,700
남광주	4,400	광주	1,900
클럽900	6,400	도쿄	2,100

상담문의 (062)351-0095